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지원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도내용>

- 2026.4.1.(수) 국민일보는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000억... 예술인도 돕는다」 기사에서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제 위기와 동떨어진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1조9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문화산업 육성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고 보도하였으며,
- 같은 날 세계일보는 「전쟁추경인데... 청년창업 지원·영화표 6000원 할인?」 기사에서, “청년 창업·일자리와 문화·예술 지원이 전쟁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일부 부처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쟁추경’으로 포장하기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지원 등 민생과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 지방재정 보강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 대부분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피해 직접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유가 충격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는 상황에서,
 - 취약부문에는 일시적 경제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인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타트업 열풍 조성(0.9조원), 청년일자리 지원(0.9조원)

-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어려운 청년 고용 여건* 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변동 및 고용시장 위축 시 직접적·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청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5~29세 실업률(%): ('25.2) 7.0 (10) 5.3 (11) 5.5 (12) 6.2 ('26.1) 6.8 (2) 7.7

** 15~29세 쉬었음(만명): ('21) 41.8 ('22) 39.0 ('23) 40.1 ('24) 42.1 ('25) 42.8 ('26.2) 48.5

-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경험·직업훈련, 취업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의 경제활동 선택 폭을 취업 외에 창업까지 확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물경제로 연결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들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문화산업 육성(0.2조원)

- 문화 분야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여건이 열악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필수재 성격이 아닌 문화생활 지출은 경기변동시 가장 먼저 소비가 감소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료 인상으로 관광업계도 수요 감소 등 직접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관광 업계를 위한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등을 제공하여 위축된 수요를 보완하고, 정책금융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를 통해 문화업계 및 기초예술인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당 사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취약노동자 지원(0.1조원)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경기변동성 확대로 임금 체불, 실업 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접 노출된 취약노동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금번 추경에서는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출을 지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④ 체납관리단(0.2조원), 농지특별조사(0.1조원)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따른 청년 입직 지연, 구직 단념이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직 청년,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js62@korea.kr)
담당 부서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4-214-2730)
		담당자	사무관	이승민 (sseung513@korea.kr)
	예산실 고용노동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 원 (044-214-2510)
		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hoochoo@korea.kr)
	예산실 기금운용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건민 (044-214-23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희 (leet88@korea.kr)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성원 (044-214-2750)
		담당자	사무관	김영수 (onandon@korea.kr)
	예산실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성주 (044-214-2550)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smj2871korea.kr)

